

우리 마을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게  
많아 신나요~

2020년 10월

#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12호

사천마을학교의 꼬마플로리스트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편집] 성경은 / 문의 : 055.268.1523

- 1. 창녕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 2. 남해 보물섬 한가위 행복드림프로그램
- 3. 고성행복교육지구 체험부스 운영
- 4. 이달의 사람책 - 사천마을교사 전영주

## TOP NEWS

### 창녕군, 2021년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경남교육청은 창녕군과 지난 9월 23일, 2021년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양 기관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녕군은 매년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예산을 공동 분담해 운영한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창녕군과 경남교육청이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할 마을 교사 양성 및 마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녕군에서는 우포늪, 지역 문화재 등과 연계한 다양한 마을 체험 활동 지원과 마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 남해행복교육지구, 보물섬 한가위 행복드림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구축

**추석때 뭐하니?(보물섬 한가위 행복드림 홍보 리플렛)**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안진수)은 2020.9.30.(수) ~ 10.4.(일) 교육지원청·가정·마을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모델을 구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원격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정체험프로그램 참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해 긴 추석연휴 동안 학생들이 온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모여앉아 편안하게 원격체험에 참여하며 사랑을 쌓을 수 있도록 남해행복교육지구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1,200여명을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다. 행복드림프로그램 신청은 남해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학생 1인당 1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석 전 신청 학생의 소속 교실로 체험재료가 배송되었다.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체험재료를 가지고 추석연휴 동안 마을선생님이 준비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원격체험에 참여하였다.

행복드림프로그램은 가정사랑, 지역사랑, 자연사랑, 감성사랑 4가지 주제로 목공예 제작, 열치 스트링아트 체험, 나만의 다육식물 만들기, 별밤 편치 니들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생태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가정으로 들어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보물섬 공교육 만족도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해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며 “지속 가능한 희망, 보물섬형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라는 슬로건처럼, 행복교육지구가 보물섬 남해의 지속가능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 고성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새로이 그린다’ 행복교육지구 체험부스 운영

창의 큐브, 3D 체험, 전통매듭 규방 공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 선보여



야외 체험부스 운영

고성행복교육지구 행복교육지원센터는 2020. 9.18.(금)~9.19.(토) 양일 간 고성군 청소년 센터 “온”의 개관식에 맞추어 진행된 제1회 고성군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참여하여 사업홍보 부스와 다양한 체험 활동 부스를 운영하였다.

코로나19 방역관리의 지침에 따라 인원제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 센터 야외 마당과 실내 체험실을 이용하여 전통매듭 규방 공예와 양말목 공예, 3D펜 체험, 창의 큐브 체험 활동 등을 선보였다.



실내체험실에서의 체험 활동

각 체험부스의 진행은 행복교육지구에서 활동 중인 지역 내 마을교사들이 재능을 모아 주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참여 인원은 프로그램 당 5명으로 제한, 시간별로 질서 있게 운영 되었다. 체험부스 참여 후 짧은 소감문 작성과 플라로이드 사진으로 인증 샷을 남기는 포토 존도 인기리에 운영되었다.



전통매듭 규방 공예 체험 활동



박중훈 교육감님의 행사방문

각 프로그램의 참여 제한 수로 인해 참여치 못한 학생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틀간의 모든 체험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조심스럽게 진행된 행사였지만 맑은 가을 날씨와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안전질서 지킴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제1회 고성군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서 진행된 고성행복교육지구 행사는 지역민과 학부모들에게 고성행복교육지구의 주요 사업을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고성교육지원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청렴문화를 확산 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이달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꽃으로 치유하다

지은이 : 전명주

(㈜숨쉬는도시생태연구소 사천지사장 & 사천 원예치료마을교사)



나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닳도록 불러대는 “원예 쌤~~” 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전명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인 사회적기업 (주)숨쉬는도시생태연구는 놀이정원사, 숲해설, 원예치료, 치유농업, 치유 숲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저는 치매노인, 성인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올해 저는 행복교육지구의 마을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교육지구의 마을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 가을 김해시의 한 고등학교의 Wee클래스실에 원예치료 수업을 갔을 때입니다.

“핸드폰 지금 끄면 게임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앉는 거 싫어요.”

나보다 덩치가 큰 아이들이 투덜대며 험악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대자 저까지 긴장이 되었지만 수업을 시작하고 압화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 압화(누름꽃)를 나누어 주자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꽃이 었다구요?”

시작도 하기 전 투덜대던 아이들은 각자의 소원(대부분 ‘부자’, ‘대박’)을 적은 종이 위에 작은 핀셋을 들고 열심히 압화를 붙입니다.

여자 친구에게도 주고 싶다며 부지런히 한 개를 더 만든 아이는 지갑에 소중히 챙겨 넣습니다.

대부분의 소원이 왜 부자와 대박이었는지.....

아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다육식물을 심는 시간에는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전보다 더욱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다육이가 적당한 위치에 심겨서 보기에 좋고, 네 것은 정말 잘 자랄 것 같구나.”

“이건 나도 잎을 떨어뜨리기 쉬운 다육인데 네가 조심스럽게 심은 게 느껴진다.”

“선생님 제가 잘 키우고 싶어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요?” “물은 얼마나 주나요?” 등 쉬지 않고 질문을 해대는 아이들을 보니 더 잘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키가 훌쩍 큰 아이들의 눈빛이 초록 다육이처럼 싱그럽고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년 구조물 꽃장식

짧은 회기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학교를 나서면서, ‘이 아이들에게 땀 흘리며 만든 텃밭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상추로 고기쌈 먹으면 참 좋아 할 텐데...채소랑 배추 키워서 바자회에 팔거나 어려운 어르신들께 갖다 드리면 삶의 다른 묘미를 찾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바램...아이들과 꽃으로 이루다.

사천행복교육지구의 마을교사가 되고 나의 바램처럼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꽃에 관심이 많은 작은 소녀들로 구성된 동아리「플라워 스타」는 처음 ‘내가 저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아이들의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에게 놀란 아이들은 완성 후 더욱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플로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제가 오늘 사용한 꽃 이름을 잘 외우고 다른 꽃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뻐요.”



플라워 스타 동아리

남자중학교에 간 첫날은 꽃 사진을 보며 꽃 이름 맞추기를 하고, 그 꽃의 의미를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꽃을 골라 이름표를 꾸었는데 유독 비슷한 두 개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표 테두리에 울타리를 만들 듯 정성을 들여 그림 그리고 장식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따로 앉아 있던 쌍둥이 형제의 이름표였습니다.

멀리 배 타고 일하러 가신 홀아버지 대신 동네 할머니가 형제를 보살펴 주고 계셨습니다. 혼자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왠지 모를 마음이 찡 해집니다.

“다음 시간은 신부부케와 신랑부토니아를 만들거야. 하지만 구조물을 만드는 꽃장식도 할 수 있단다. 이걸 처음 하는 너희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릴 만큼 어려워, 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 때 쌍둥이 형제 중 한명이 손을 들며 “선생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어려워도 만들고 나면 더 보람되고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이럴수가!

이렇게나 기특하고 열정 가득한 아이들은 다음 시간에는 쉬는 시간을 반납해서라도 어려운 작품인 구조물 꽃장식을 만들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유기농 식용꽃 케이크 만들기

유난히 얼굴을 붉히고 모든 일에, 누구에게나 화를 많이 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작품을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화를 냈는데,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무척 성실하고 꼼꼼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화를 내지 않고 누구보다 빠르게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다른 친구들까지 그 아이의 작품을 보고 따라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짐을 챙기던 제 앞에 자기 작품을 두더니 활짝 웃으며 “선생님! 그거 선생님 선물이에요, 선생님 꼭 가져가세요!”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앗 만다라 액자 만들기

이처럼 행복교육지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식물이 가져다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자연이 갖고 있는 신비함으로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심어 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학교와 마을 선생님들과 더욱 협력하여 학교와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마을교사로 선택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지원해주신 사천행복교육지구에 깊은 감사드리고 싶고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아이들 모두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우수상 - 꽃, 기억으로 피어나다

2020.9.25 경상남도 자원봉사대축제 '5분의 울림, 5천만의 감동!'

마지막으로.. 저는 사천시에서 경증치매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인지과 감각자극 정서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원예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이그나이트 V-KOREA×경남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동참하여 아동, 청소년 등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손길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